

Epiphany와 Vector의 관계로 본 文體

金 亭 子*

- I. 머리말 (2) 玄纘健의 불(1924년)
(1) epiphany (3) 廉想涉의 標本室의 靑개구리(1921년)
(2) epiphany 현상과 vector (4) 李箱의 날개(1936년)
- II. 작품의 분석 III. 맺음말
(1) 金東仁의 狂畫師(1930년)

I. 머리말

(1) epiphany

epiphany란 라틴어의 epiphania, 희랍어의 epiphaneia에 해당하는 語源을 가지는 말로써 英語에서는 'an appearance' 혹은 manifestation으로 번역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뜻은 신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의 幻影이 나타나거나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의 顯示를 말함인데 이 용어의 보다 근원적인 뜻은 매년 성탄절이 지난지 열 이틀째 날이 되는 정월 초엿새¹⁾의 축제를 일컬어서 'Epiphany'라고 하는데 一說에는 이날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고 일컬어 진다. 따라서 epiphany란 그리스도가 나타나듯이 빛나는 섬광같은 정신적인 요소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우리는 늘 평소에 무관심하게 그리고 혼하게 볼 수 있고 느낄수도 있는 아주 평범한 대상들에게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갑자기 엄청난 의미와 가

* 釜山大 人文大 專講

1) 이 날은 Twelfth-day라고 하여 그리스도가 이교도들(Gentiles)에게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실을 가리키는 主顯節로 Christmas가 지난지 열 이틀째 되는 정월 초엿새 날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축제를 벌인다. 이 Twelfth-day의 前夜를 일컬어서, Twelfth-night라고 하고 이 날 밤에 게임과 향연을 베푼다.

치를 발견하게 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무심히, 지나치던 어떤 소녀를 어느날 예배당의 종소리가 상큼하게 울려오는 새벽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평소에 그 소녀에게서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특수한 강정을 느끼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서,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생명의 신비로움과 신선함을 느끼면서 돌연히 자신의 삶에 대한 경건한 의미와 가치를 신선하게 느끼며 환희와 열렬한 의욕을 의식할 수 있었다면 이 때 이 소녀의 출현(the sudden revelation)은 새로운 삶에 대한 행복하고 쾌적한 모우멘트로, 갑자기 나타난 빛나는 섬광이나 顯示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문학작품 속에서 epiphany란 용어로 적용시킨 대표적 작가는 James Joyce이다. 그는 그의 작품 가운데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감정의 흐름을 확고한 신념과 함께 대범하게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의 epiphany 현상의 대표적인 예를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Chap. 4)²⁾에서 들어 보기로 한다.

.....

—오 하나님!

스티븐의 마음은 인간세상의 범속한 기쁨에 넘쳐 외쳤다.

그는 소녀로부터 문득 돌아서서 물가를 가로 질러갔다. 얼굴은 후끈 붉어지고 몸은 달고 손발은 멀렸다. 그냥 그냥 그냥 성큼 성큼 걸어가 멀리 모래밭으로 나가며 바다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그를 부르는 삶이 다가옴을 맞으려고 불렀다.

소녀의 모습이 그의 영혼에 오랫동안 새겨져 기쁨에 도취한 성스러운 침묵을 깨뜨리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소녀의 눈이 그를 불렀으며 그의 영혼은 그 부름을 따라 뛰어나갔다. 살며, 실책을 거듭하며 넘어지며 승리하며, 삶에서 삶을 다시 창조하는 것! 야성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었다. 인간의 청춘과 아름다움의 천사, 삶의 아름다운 궁중에서 보낸 사절(envoy), 이 기쁨에 도취한 찰나에 그의 앞에 실책과 영광의 길로 이끄는 문물 열어 던질 사절(使節)! 그냥 그냥 그냥 그는 갔다.

.....

2)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pp. 171. L. 16 ~172. L. 끝

벨비디어 학교(Belvedere College)의 院長이 성직자가 될 천분을 가진 사람으로 스티븐을 인정하고 사제가 될 것을 권유하였을 때 영원한, 상상력의 사제(priest of eternal imagination)가 되기 위해 이를 거절하고 원장실을 빠져나와서 물가(strand)로 나선 스티븐에게, 갑자기 나타난 어린 소녀의 존재는 신앙보다 더 강한 어떤 생에 대한 본능을 마음 속에서 불현듯 살아나게 하고 엄청나게 크고 강렬한 희열을 느끼게 하는 모우멘트가 된다. 물가에서 보는 소녀는 일상생활에서 범상하게 볼 수 있는 소녀의 존재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spots of time) 갑자기 나타난 이 어린 소녀의 존재는 자기발전 道程에 이르러 예술세계의 문을 열어 주는 천사로 느껴진다. 이 천국의 使者는 심장을 뛰게 하고 기쁨에 도취하여 삶을 다시 창조하는 야성의 천사로서 顯示되는 신성한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존재요 섭광(radiant)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은 무의식 세계에서 항상 가장 인간적인 본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야성적 욕망이, 엄청나게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금욕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갑자기 튀어나와 불꽃같이 번쩍이는 모습으로 顯示되는 장면이다.

이와같이 작품 가운데서,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를 어느 특정한 순간에 강렬하게 가치있는 것으로 느낀다든지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어떤 모우멘트로 느낀다든지 하는 의식의 작용을 문학에서 epiphany 현상이라고 일컫게 된다.

따라서 本攷에서는 epiphany 현상과 vector 구조를 연결시켜 그 文體의 특이성을 발견하고자 함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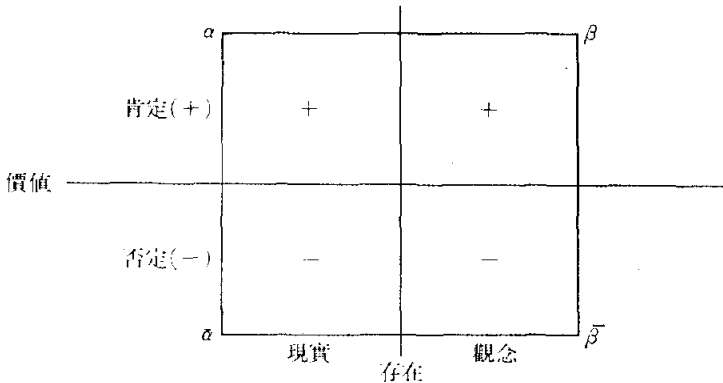
이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근대소설 작가중 金東仁, 玄鎭健, 廉想涉, 李箱 등의 단편소설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관찰하고자 한다.

(2) epiphany 현상과 vector

이러한 epiphany 현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것을 관찰하면 작가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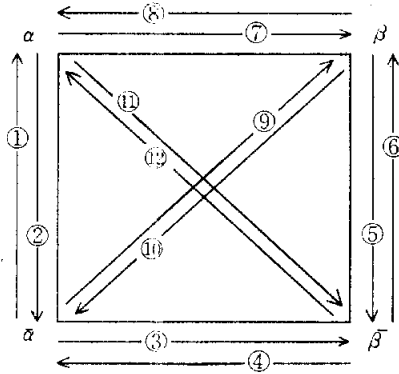
이러한 epiphany 현상이 나타날 때 작가나름의 사고구조의 움직임이 있

을 것인데 이를 vector 현상과 연관시켜 작가의 의식 구조를 관찰하면 작가의 특이한 文體가 드러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vector란 물리학과 수학에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으로 설명되는 용어(①)인데 이를 문장에서借用하는 까닭은 相對極으로부터 한 極으로의 方向을 가진 思考作用의 운동이란 점에서다. 인간의 사고구조의 움직임이 이 기호로써 나타내 보고자 하여 이 부호를 원용하였는데, 현실세계를 α 라 하고, 현실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α , 부정적 가치판단을 $\bar{\alpha}$, 존재의 유무에 따라관념의 세계를 β 라고 하여 관념의 세계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β , 부정적 가치판단을 $\bar{\beta}$ 라 한다면 이때 사고구조의 움직임을 도식화하기 위하여 4極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와 같이 되는데 가로축은 價値判斷의 축으로 사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판단이 이루어짐을 뜻하고 세로축은 存在의 有無를 나타내는 것으로 現實과 觀念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축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구조의 움직임은 이 4極을 사이에 두고 다음 그림과 같이 12가지의 vector로써 그 왕복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양 極의 부호 위로 \rightarrow 을 표시하여 사고구조의 vector를 나타내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12개의 움직임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vec{\alpha\alpha}$ ② $\vec{\alpha\bar{\alpha}}$ ③ $\vec{\bar{\alpha}\beta}$ ④ $\vec{\beta\bar{\alpha}}$ ⑤ $\vec{\beta\beta}$ ⑥ $\vec{\beta\beta}$
 ⑦ $\vec{\alpha\beta}$ ⑧ $\vec{\beta\alpha}$ ⑨ $\vec{\bar{\alpha}\beta}$ ⑩ $\vec{\beta\bar{\alpha}}$ ⑪ $\vec{\alpha\beta}$ ⑫ $\vec{\beta\alpha^3}$

이와같이 epiphany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떠한 vector 운동이 일어나는가를 살피기 위해 epiphany 현상이 일어나기 전후의 vector 운동을 상호검토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작품의 분석

(1) 金 東 仁

[狂畫師(1930년)]

(가) epiphany 현상

金東仁의 작품 가운데서 「광화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작품의 冒頭部分이 epiphany 현상의 文體特性을 갖추고 있다.

作中の 話者는 바람이 있고 암굴이 있고 산초산화가 있고 계곡이 있고 절벽과 亂松이 있는 유수(幽邃)한 심산 가운데서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와는 아래 날아드는 奇鳥들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 끝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3) 金亭子; 난개의 文體論的 分析—思考構造의 分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第15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2, pp.81~89

솔잎과 그윽히 코로 볼려드는 송진냄새와 소나무에 불리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계곡으로 흐르는 저 맑은 샘물을 두고 한 개의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난다. 이것이 狂畫師의 이야기를 이루게 된다. 계곡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은 우리들이 평범한 눈으로 보아 넘길 때는 결국 신선하다는 느낌 이외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오브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대상’에서 話者が 狂畫師의 이야기를 불현듯 생각해 낸다는 것은 분명 갑작스런 섬광(sudden radiant)의 요소를 발견해 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話者の 이 ‘狂畫師의 이야기’ 가운데는 또 하나의 epiphany가 나타난다.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話者の ‘이야기’ (광화사의 이야기)를 話素的形式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기로 한다.

1. 세종때의 화공(솔거)은 뜨거운 여름 별에 내리쬐면서 뽕밭(왕후침장에 쓰이는)에 몸을 숨기고 있다. 뽕밭에서 작품의 소재(아름다운 궁녀)를 찾는 그는 보기드문 추남자다. 사람을 피하기 위해, 畫道에 정진하기 위해 그는 백악의 숲속 오두막에서 산다.
2. 幽遠하고 靜的인 그림에 실증을 느낀 그는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고 싶어한다.
3. 뽕밭에서 아름다운 궁녀를 찾아 사십년 전의 어머니를 그리고자 하나 그런 얼굴은 없다. 桑園을 다시는 찾지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화공은 허탈하게 세월을 보내고 만다.
4. 가을하늘이 맑고 푸른 어떤 날 산속 시냇가 바위 위에 웬 처녀가 앉아있다 석양을 받고 앉아 시냇물을 바라보는 처녀를 망연히 그리고 의미없이 바라보던 화공은 갑자기 가슴에 무거운 긴장을 느낌과, 동시 얼굴에 피가 떠오른다 눈을 깜박이는 것을 잊은듯한 황홀한 처녀의 눈에서 그새 십년간을 찾아 다니던 눈을 발견한다.
5. 화공은 처녀가 장님임을 발견한다. 용궁의 이야기를 처녀에게 들려준다. 그때 처녀의 눈은 놀람과 기쁨으로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눈으로 변한다. 화공은 미친듯 아아아! 탄성을 발하며 그림을 그리나 눈동자를 그리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온다.
6. 어둠 속에서 화공은 처녀를 범한다. 밝은 날 처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황홀한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7. 화공은 처녀를 정신없이 저주하며 벽살을 잡고 흔들다가 문득 처녀가 죽음을 깨닫고 놀란다. 핏자국이 튀어서 묘하게도 처녀의 눈동자를 그려 놓는

다. 원망스러운 눈동자를 완연히 나타내고 있다.

8. 화공은 狂人이 되어서 化상을 안고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話素 4는 모든 것(話素 1~3)을 포기한 상태에서 불탄과 실의물 안고, 망연한 자세로 살아가는 화공에게 갑자기 나타난 처녀의 출현에서 일어나는 epiphany 현상의 스포트이며 빛나는 섬광의 顯示이고 話素 4로 인해 예술작품의 모티브를 얻고 가장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best and happiest moments)을 話素 5에서 감지하게 되며 話素 6은 행복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고 話素 7에서는 죽음이라는 현실과 그림의 완성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 사실을 감지하게 되는데 話素 4~7까지는 epiphany의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 작품은 작품의 冒頭에서 epiphany 현상이 일어나고 狂畫師의 이야기 속에서 epiphany 현상이 일어나는 복합구성의 epiphany적 文體特性을 가지고 있다.

(나) vector 현상

「광화사」에서 epiphany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떠한 vector 현상이 일어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epiphany의, vector를 찾아보면

㉑ 아름다운 십산유곡의 유수함과 골잡기로 흐르는 솔바람 소리 제목으로 흐르는 샘물 소리들은 모두 α 의 세계에서 맛보는 황홀함이다. 이 황홀함 가운데서 특별히 섬광적인 오브제는 ‘샘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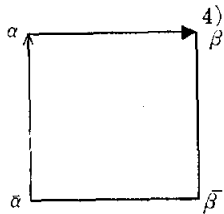
㉒ 여기서 아름다운 이야기(광화사의 이야기)를 불현듯 생각해 낸다 이것은 β 의 세계에로의 비약이다.

㉑, ㉒의 두 사고구조의 흐름을 vector 현상으로 나타내면 ㉑는 아름다운 세계로 오기 전의 잡다한 현실이 α 의 세계이므로 $\vec{\alpha\alpha}$ 의 vector 구조를 이루게 된다. ㉒는 ㉑라는 α 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관념(환상)속의 이야기를 유추해 내므로 β 의 세계에로 비약하는 사고구조이므로 $\vec{\alpha\beta}$ 의 vector 현상이 일어난다. ㉑, ㉒를 ‘epiphany 1’로 간주하고 다시 정리하면

㉑..... $\vec{a}\alpha$

㉒..... $\vec{\alpha}\beta$

이를 종합적 vector 구조로 도시하면



의 구성도를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광화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話素 4~7 까지를 종합적 vector 구조로써 살펴 보면

話素 4에서는 아름다운 환상의 얼굴을 그리나 추한 얼굴만 발견하게 되므로 'β'의 세계에서 어느 가을날 발견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느끼는 황홀감이므로 β의 vector로 움직인다. 따라서 話素 4의 vector는 $\langle \vec{\beta}\beta \rangle$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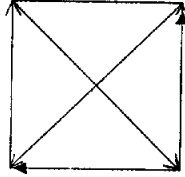
話素 5는 β의 세계에서 황홀한 그림을 그리나 어둠으로 인해 다 못그리고마는 α의 세계로 전락하고 만다. vector는 $\langle \vec{\beta}\alpha \rangle$ 가 된다.

話素 6은 어둠 속에서 현실의 처녀를 범하므로 α의 세계가 되었지만, 다시 밝은 날 그림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vector는 β로 이동하므로 $\langle \vec{\alpha}\alpha \rangle$ 와 $\langle \vec{\alpha}\beta \rangle$ 의 복합구조를 이루게 된다.

話素 7은 처녀를 정신없이 저주하고 벽살을 호들고 하는 β의 세계에서 처녀가 죽었음을 깨닫는 절망적인 α의 세계로 변환하나, 한편으로는 그 작품의 완성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던 '작품의 완성'이라는 환희의 결과가 복합되므로 vector 현상은 $\langle \vec{\beta}\alpha \rangle$ 와 $\langle \vec{\beta}\beta \rangle$ 의 두 요소로 나타난다. 話素 4~7을 epiphany 2로 간주하고 종합 vector의 구조로 圖示하면 다음과

4) —▶: 사고구조의 왕복운동에서 맨 끝이 되는 복으로의 vector운동을 final vector라고 하여 '—▶'로 표시하기로 한다.

같다.



(2) 玄 鑣 健

[불(1924년)]

(가) epiphany 현상

玄鑣健의 작품 가운데서 ‘불’의 경우를 살펴보면 열다섯밖에 안 되는 나이에 시집을 와서 밤이면 남편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낮이면 일과 시어머니의 심한 학대에 몹시 시달리던 ‘순’이라는 주인공이 어찌해서든 남편이 순이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방’만 없어지면 불행을 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㉔ 온전히 그 원수의 방 때문이다. 만일 그 방만 아니면 남편이 또한 눈물을 씻어주고 나갈 따름이다. 만일 그 방만 아니면 그런 고통을 주려야 출구가 없을 것이다. 그 원수의 방을 없애 버릴 도리가 없을까? 여태 방을 피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순이는 인제 그 방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게 되었다.

㉕ 밤이 보그를 하고 녀었다. 순이는 솔뚜정을 열려고 있어섰을 계 부뚜막에 얹힌 성냥이 그의 눈에 띄었다. 이상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스쳐 나간다. 그는 성냥을 쥐었다. 성냥 켜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중략〉……

㉖ 그날밤에 그 집에는 난매 없는 불이 전년방 뒤걸 추녀로부터 일어났다. 등세를 얻은 불길은 삼시간에 온 지붕에 번지며 훨훨 타오를 제 그 뒷집담 모서리에서 순이는 근래에 없이 환한 얼굴로 기뻐 못견디겠다는 듯이가슴을 두근거리며 모로 뛰고 세로 뛰었다.

㉔~㉖는 「불」의 마지막 대문이다. ‘성냥’이라는 심광적 존재는 순이를 放火의 기쁨과 행복한 순간으로 끌고 간다.

이와같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오브제(성냥)는 어느 시

기에 갑작스런 모우먼트가 되어 켈릭터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인한 최상의 경지로 몰아넣게 되는 epiphany 현상을 일으키는 文體樣相을 보인다.

(나) vector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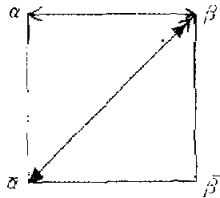
「불」에서 일어나는 epiphany 현상은 어떠한 vector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㉑ ‘원수의 방’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순이가 원수의 방을 없애 버리면 고통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므로 vector 는 α 에서 β 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langle \vec{\alpha\beta} \rangle$ 가 된다.

㉒는 이 때 ‘성냥’의 발견과 함께 이상한 생각이 섬광처럼 떠오르므로 이때의 vector 도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첫째는 ㉑와 연결되는 $\langle \vec{\beta\alpha} \rangle$ 이고 둘째는 다시 α 에서 β 로 가는 $\langle \vec{\alpha\beta} \rangle$ 의 vector 구조를 가진다.

㉓는 불이 나고($\bar{\alpha}$),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뻐하는 순이가 있으므로 두 가지의 vector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는 $\langle \vec{\beta\bar{\alpha}} \rangle$ (㉒와 연결되는), 둘째는 $\langle \vec{\bar{\alpha}\beta} \rangle$ 가 된다.

이를 종합적 vector 구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廉 想 涉

[標本의室의 靑개구리](1921년)

(가) epiphany 현상

廉想涉의 작품 가운데서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경우를 보면 ‘김창익’과 ‘대동강가의 장발개’과 중학교때의 ‘박물선생’과 ‘나’의 아이덴티티현상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황이 epiphany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epiphany는 전체적으로 무의식 가운데서 동질화 개념을 가지면서 연결되는 오브제들이 epiphany 현상으로 具象化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대문을 話素의 形式으로 요약하여 나타내 보기로 한다.

話素 1. 狂인이 된 김창억을 ‘나’는 친구들과 같이 방문한다. 그때 수열이 까맣게 덮인 그의 얼굴을 보고 나는 앓! 하며 깜짝 놀라며 가슴이 싯똥타며 감전된듯 심한 전율과 이상한 의혹과 맹렬한 호기심을 느끼며 그에게서 중학교 박물관선생을 오우버랩시킨다.

話素 2. 경이와 공포와 칠통과 애수와, 동시에 경악의 전율과 고민과 연민, 동시에 미치게 기쁜 통쾌를 김창억에게서 느낌은 失神者라고 할까. 자유인이라고 할까. 현대의 모든 병적타크사이드를 응축해 놓은 후, 오뇌의 환악이 타는 것 같다고 할까. 욕구를 홀로 구현한 승리자 같다고 할까. 이런 착잡한 심리를 느끼는 까닭이고, 또한 놀라고 슬프고 엄숙하고 경건한 심장에 압축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포 세포가 환희와 오뇌 사이에서 뛰노는 기절한 만큼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話素 1에서 話素 2로 넘어오는 심리의 움직임은 김창억이 어찌던 박물관 선생인 것 같기도 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여러 날의 불면증의 밤을, 보내는 나 자신인 것 같기도 하다는 데서 오는 어떤 놀라움과 슬픔과 기쁨의 혼합된 감정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epiphany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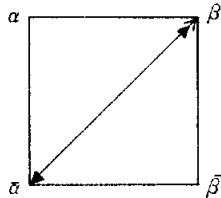
(나) vector 현상

「標本室의 靑개구리」에서 일어나는 epiphany 현상은 어떠한 vector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話素 1은 친구들과 김창억을 방문하기 이전의 ‘나’는 피해의식 속에 사로 잡혀 방황하는 중이므로 $\bar{\alpha}$ 의 상태이다. 거기서 어느날 우연히 김창억을 바라보는 순간 앓!하고 놀라는 전율과 호기심은 β 의 세계에로의 급작스런 비약을 의미하므로 vector 현상은 $\langle \bar{\alpha}\beta \rangle$ 가 된다.

㉡ 話素 2는 복합적인 심리구조이다. 놀라고 슬프고 엄숙한 세계에서 떨리는 순간과 기쁨과 환희와 전율에 떠는 순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vector 는 $\langle \vec{\beta}\vec{\alpha} \rangle$ 와 다시 $\langle \vec{\alpha}\vec{\beta} \rangle$ 에로의 vector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를 종합 vector 구조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4) 李 箱

[날개](1936년)

(.) epiphany 현상

「날개」속에서 일어나는 epiphany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epiphany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대문을 話素의 形式으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話素 1. 미쓰코시 욕상에서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고도 없다고도 대답하기 싫어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싫어하는 자신을 느낀다.

話素 2. 나는 허리를 굽혀서 ‘금붕어’를 바라보고 있다. 성실하게 보기좋은 금붕어가 오일햇살에 그림자를 내며뜨리고 지느러미를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용내를 내면서 헤엄치는 금붕어를 들여다 보며 따뜻한 등의 햇살을 느낀다.

話素 3. 오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자. 피곤한 생활이 거기서는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허느적거림을 느끼지만, 피로와 공부때문에 그 오탁의 거리로 쉬여들어가야 함을 생각한다.

話素 4. 그 때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떨어지면서 아스피린과 아달린(수면제) 사이에서 피로와 한다.

話素 5. 아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절름발이라고 서로의 행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話素 6. 아내에게로 가야하는지 아던지를 분간하기 어려움을 느낀다.

話素 7. 뚜우하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모두 네 팔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림을 느끼며 잉크처럼 부글부글 끓는 수선스러운 현실

에 대해 현기증을 느낀다.

話素 8. 자신의 저드망이가 불현듯 가려움을 느끼며 지금은 없는 이 ‘날개’가 돌아서 다시 한번 날아보자는 열망의 세계로 비약한다.

話素 2의 상태에서 금붕어로 인해 쾌적한 기분으로 변하는 ‘나’의 상태 α 는 지느러미처럼 흐늘거리면서 話素 3의 피로와 공복으로 인한 $\bar{\alpha}$ 를 느끼고 다시 아내와 아달린 아스피린으로 인해 話素 4~6에서는 α 와 $\bar{\alpha}$ 의 세계를 방황하다가 話素 7에서는 ‘쭈우’하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로 인해 갑자기 현기증을 느낌과 함께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의 출현을 의식하게 하는 모우멘트(sudden moment)를 얻고 비상을 갈망하는 중요한 순간(spots of time)이 되므로 epiphany의 오브제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로써 나타나고 있다.

(나) vector 현상

㉑ 話素 1은 아달린을 먹여서 감기를 앓는 나를 잠재운 아내를 미워하느냐 용서하느냐 생각하다가 용서하기로 하면서 산 위에서 내려온 다음의 나의 심리상태이므로 α 에서 $\bar{\alpha}$ 로 이동하는 vector, 따라서 vector 구조는 $\langle \alpha\bar{\alpha} \rangle$ 다.

㉒ 話素 2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싱싱한 금붕어를 보면서 기분좋은 햇살을 등에 받고 있으므로 $\langle \bar{\alpha}\alpha \rangle$ 의 vector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㉓ 話素 3은 오락의 거리를 내다보며 피곤해 하다가도 자신도 피로와 공복때문에 그 거리로 들어가야 할을 느끼므로 vector는 $\langle \bar{\alpha}\bar{\alpha} \rangle$ 가 된다.

㉔ 話素 4는 아스피린(α , 아내에 대한 긍정적 오브제)과 아달린($\bar{\alpha}$, 아내에 대한 부정적 오브제)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langle \bar{\alpha}\alpha \rangle$, $\langle \alpha\bar{\alpha} \rangle$ 의 二重的 vector 구조를 가진다.

㉕ 話素 5는 아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므로 vector, $\langle \bar{\alpha}\alpha \rangle$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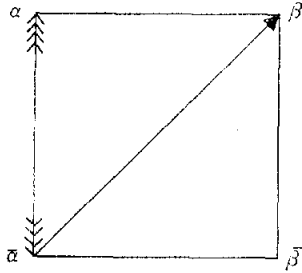
㉖ 話素 6은 아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식이 중복되므로 vector도 $\langle \bar{\alpha}\bar{\alpha} \rangle$ 와 $\langle \alpha\alpha \rangle$ 의 二重構造를 가진다.

㉗ 話素 7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현실에 대한 현기증을 느끼므로 vector

구조는 $\langle \vec{\alpha\alpha} \rangle$ 가 된다.

④ ‘날개’가 돌아 영원한 평온과 안식의 세계로 비상할 것을 갈망하는 무한한 관념적 욕구가 생기므로 vector도 三次元的 세계에로의 指向을 의미하는 $\langle \vec{\alpha\beta} \rangle$ 의 구조를 가진다

이들을 종합 vector의 구조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4작가의 단편소설에서 나타나는 epiphany 현상을 살펴보고 이 때 일어나는 思考構造의 움직임은 vector의 움직임으로 관찰하여 보았다. 이들 4작가의 epiphany는 작품 속에서 어떠한 vector의 樣相을 가지고 나타나느냐를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특성을 찾고 따라서 그 文體特性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어 그 첫 실험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本巧에서 관찰대상이 된 작품 이외에도 epiphany 현상이 일어나는 작품이 더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관찰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고 선명한 文體特性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표와 같이 epiphany와 vector의 움직임과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table-I〉은 epiphany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vector의 왕복운동을 작가별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table-1> [epiphany 현상과 vector 의 운동]

| 작 가 별 | vector 의 왕 복 운동 | | | | | | fv | | tv | |
|-------|-------------------------|-------------------------|-------------------------|-------------------------|-------------------------|---------------------|---------------------|---------------------|---------------------|---------------------|
| | epiphany 1. | | epiphany 2. | | | | ep. 1. | ep. 2. | ep. 1. | ep. 2. |
| 김 동 인 | $\vec{\alpha\alpha}$ | $\vec{\alpha\beta}$ | $\vec{\beta\beta}$ | $\vec{\beta\alpha}$ | $\vec{\alpha\alpha}$ | $\vec{\beta\alpha}$ | $\vec{\alpha\beta}$ | $\vec{\beta\alpha}$ | $\vec{\alpha\beta}$ | $\vec{\beta\alpha}$ |
| | | | | | $\vec{\alpha\beta}$ | $\vec{\beta\beta}$ | | $\vec{\beta\beta}$ | | $\vec{\beta\beta}$ |
| 현 진 건 | $\vec{\alpha\beta}$ | | $\vec{\beta\alpha}$ | | $\vec{\beta\alpha}$ | | $\vec{\beta\alpha}$ | | $\vec{\alpha\beta}$ | |
| | | | $\vec{\alpha\beta}$ | | $\vec{\alpha\beta}$ | | $\vec{\alpha\beta}$ | | | |
| 염 상 섭 | $\vec{\alpha\beta}$ | | $\vec{\beta\alpha}$ | | | | $\vec{\beta\alpha}$ | | $\vec{\beta\alpha}$ | |
| | | | $\vec{\alpha\beta}$ | | | | $\vec{\alpha\beta}$ | | $\vec{\alpha\beta}$ | |
| 이 상 | 1. $\vec{\alpha\alpha}$ | 2. $\vec{\alpha\alpha}$ | 3. $\vec{\alpha\alpha}$ | 4. $\vec{\alpha\alpha}$ | 5. $\vec{\alpha\alpha}$ | $\vec{\alpha\beta}$ | | $\vec{\alpha\beta}$ | | |
| | | | | $\vec{\alpha\alpha}$ | | | | | | |
| | 6. $\vec{\alpha\alpha}$ | 7. $\vec{\alpha\alpha}$ | 8. $\vec{\alpha\beta}$ | | | | | | | |
| | $\vec{\alpha\alpha}$ | | | | | | | | | |

fv = final vector
tv = terminal vector

<table 2> [epiphany 현상과 vector의 構成圖]

→ : final vector
s-fv : synthetic final vector

| 작가별 | | vector | s-fv | fv |
|-----|-------|--------|------|----|
| 김동인 | ep. 1 | | | |
| | ep. 2 | | | |
| 헌진건 | | | | |
| 엄상섭 | | | | |
| 이상 | | | | |

※s-fv (synthetic final vector)

세 작가들의(김동인, 염상섭, 이상) final vector는 terminal vector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fv'라고 일컫은 것은 epiphany의 마지막 '話素부분'에서 일어나는 왕복운동을 의미함이고 'tv'라고 하는 것은 그 epiphany의 마지막 話素부분에서 일어나는 思造構造의 운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vector를 의미함이다. 3인(김동인, 염상섭, 이상)의 epiphany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final vector는 複合的인 동시에 共時的으로 일어나지만 현진건의 「불」의 경우는 불이 일어난다는 부정적 현실이 생기는 것 ($\vec{\beta\alpha}$)에 이어 계기적으로 '순이'의 두근거리는 가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므로 ($\vec{\alpha\beta}$) 복합적 final vector의 구조가 계기적 vector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terminal vector에 가서는 결국 ' β '의 세계로 향하는 하나의 움직임만을 보이는 까닭에 terminal vector를 단일한 vector 운동으로 ($\vec{\alpha\beta}$) 인정하였다.

<table-1>의 vector의 왕복운동표를 이번에는 4極의 대칭으로 만들어진 四角의 構造圖로 나타내어 보면 앞페이지의 <table-2>와 같다.

table ①과 table ②에서 각 작가들의 작품에서 epiphany 현상이 일어날 때 vector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는 공통성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더라도 모두 ' β '의 세계로 향하는 최종의 vector 구조를 이루고 있는 文體特性을 발견하게 된다.

김동인의 epiphany가 $\vec{\alpha\alpha}$, $\vec{\alpha\beta}$ 라든가 $\vec{\beta\beta}$, $\vec{\beta\alpha}$, $\vec{\alpha\beta}$, $\vec{\beta\alpha}$ 등의 어지러운 vector 구조를 가짐은 狂症에 가까운 예술가의 환희가 이루어지는 epiphany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관찰할 수 있겠고, 현진건과 염상섭의 경우는 비슷한 vector의 구조를 가지는데 현진건의 epiphany의 경우에 일어나는, $\alpha\beta$ 의 운동과 $\beta\alpha$ 의 왕복운동을 가지는 vector의 움직임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epiphany 현상에서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vector 구조를 가진것은 李箱의 文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현실의 긍정적 판단(α)과 부정적 판단($\bar{\alpha}$) 사이를 모두 아홉번이나 왕복하다가 드디어는 α 와 $\bar{\alpha}$ 와는 아무관계도 없는 β 의 세계로 飛翔하고 마는 것이 그의 epiphany 현상에서 일어나는 vector 구조이다.

따라서 李箱은 epiphany 현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특이한 文體樣相을 가진 작가라고 할 수 있겠고, 김동인의 文體도 특이한 樣相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epiphany 현상이 일어날 때 움직이는 사고구조의 특성을 vector의 움직임으로 비교검토했으므로써 작가의 文體의 특이성을 살펴 보았는데, 근대소설 작가의 작품 가운데서 epiphany 현상이 일어나는 文體樣相을 가진 작가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한 책들]

Irene H. Chayes; "Joyce's Epiphanies",

Criticism and Critiques, ed. T.E. Connolly (1962)

Robert Scholes; "Joyce and the Epiphany",

Sewanee Review, LXII (1964)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Rinehart English Pamphlets, 1971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Ltd. 1960

金亨子: 「남개의 文體論的 研究—思考構造의 分析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第 15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韓國文人協會: 韓國短篇文學大系 1, 2, 3, 三省出版社, 1974.